

번역판 Sensory Profile의 내용 타당도 연구

박경영*, 유은영**

*경동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번역판 Sensory Profile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번역 문항이해도 검증을 통하여 내용 타당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 본 연구를 위하여 우선 전문위원회의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으며, 이후 문항이해도도를 조사하였다. 3인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는 원문과 번역판 Sensory Profile 평가도구를 비교하여 문장 표현과 의미를 검토하였고, 자녀를 둔 부모 33명과 임상경력 1년 이상의 작업치료사 42명을 대상으로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번역판 Sensory Profile의 문항이해도도를 평가하였다. 각 항목별 응답자의 80% 이상이 '보통(3점)' 이상으로 응답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은 수정해야 할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결과 : 전문위원회에서는 1차 검토 결과 부적절한 어휘 혹은 문법상 오류가 있는 37개 항목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2차 검토에서는 13개 항목, 3차 검토에서는 3개 항목 수정을 권고하였다. 전문위원회에 의해 수정된 Sensory Profile에 대한 부모와 치료사간의 문항이해도도를 비교한 결과 부모집단은 응답자의 87.9~100%가 '보통(3점)' 이상으로 응답하여 수정해야 할 항목은 없었다. 작업치료사의 경우 문항이해도도는 2개 항목(75번, 101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은 응답자의 83.3% 이상이 '보통(3점)'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최종적으로 2개 항목은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통하여 수정하였다.

결론 : 번역판 Sensory Profile은 부모집단과 치료사집단의 문항이해도도가 모두 높게 나타나 문항이해도 측면에서 읽기 쉽게 표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최종적으로 전문위원회 검토를 통하여 일부 항목을 수정함으로써 내용 타당도를 높였다.

주제어 : 내용타당도, 문항이해도, 전문위원회 검토, Sensory Profile

I. 서 론

작업치료 평가는 작업치료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작업치료를 시행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Law, Baum, & Dunn, 2005). 따라서 작업치료사는 다양한 평가방법과 평가도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하

며, 치료대상자에 따라 적절한 평가도구를 선택하고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Pedretti & Early, 2001). 이를 위해 작업치료사는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우선, 평가도구의 평가 영역 혹은 목적을 알아야 하고, 둘째로 평가대상자, 시행방법 및 소요시간 등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표준화된 평가

도구를 선택해야 한다(Law et al., 2005).

일반적으로 비표준화된 평가도구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고 평가과제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평가시 권장하지 않는(Radomski & Trombly, 2008) 반면, 표준화된 평가도구는 검사 개발과 표준화 과정, 표준화 자료, 정해진 시행방법과 결과 해석이 명료하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Case-Smith, 2005; Mulligan, 2003). 국내의 작업치료사들도 이러한 장점 때문에 대부분 표준화된 평가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 평가도구는 모두 외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일부 평가도구에 대해서만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이 이루어진 실정이다(양경희 등, 2007; 정한영, 김명옥, 백경우와 김태현, 1999; 차유진과 이태용, 2008; 황옥남과 조갑출, 2001).

다른 문화권에서 개발된 평가도구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은 물론 그 이전에 한국어 번역과정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원래 평가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번역함으로써 번역 오류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임은영, 1998; Ercikan, 1998). 선행 연구에서도 평가도구에 대한 엄격한 번역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번역에 대한 검증 없이 표준화 자료, 신뢰도, 타당도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만 평가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번역의 오류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된 바 있다(Ercikan, 1998; Kristjansson, Desrochers, & Zumbo, 2003).

Bullinger 등(유생열, 2003에 인용된)이 제시한 번역과정은 번역, 역번역, 원문과 역번역본간 차이비교, 위원회의 검토, 질적 분석, 대상 집단의 자료 분석, 인지적 면담과 문항이해도(readability) 평가, 심리 측정적 분석(신뢰도, 타당도) 절차로 이루어져있다. 이와 유사하게 Kristjansson 등(2003)의 연구에서는 5단계에 걸친 번역과정으로 평가도구의 문화적 적합성, 평가도구의 번역과 역번역 과정, 전문위원회의 검토, 평가도구의 문항이해도 평가와 면담, 신뢰도와 타당도 확립을 언급하였다.

번역 과정 중 번역과 역번역 과정은 원문과의 비교를 통해 문법적, 개념적 동등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검토, 인지적 면담, 문항이해도는 평가대상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나 잘못된 응답을 유도하는 오역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내용타당도를 확립할 수 있다. 이 중 번역-역번역 과정과 위원회 검토 이후에 문항이해도 평가는 번

역 후 평가항목이 언어적으로 해당 문화권에 적합한 단어로 표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문항이해도란 번역내용이 얼마나 읽기 쉽게 쓰여졌는가를 말하며, 오승준, 박형근, 백성현, 박원희와 주명수(2005)의 연구에서도 번역과정에서 평가대상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질문이 쉽고 응답하기 쉬운 번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통하여 평가항목이 원래 평가도구의 평가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번역되어 되었는가를 검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국내 작업치료분야에서 사용되는 평가도구는 박소연과 유은영(2002)에 의하면 약 47개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유은영, 정민예, 박소연과 최은희(2006)의 연구에서는 총 86개인 것으로 나타나 작업치료사의 평가도구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FIM)(정한영 등, 1999), Loewenstein Occupational Therapy Cognitive Assessment for Geriatric Population(LOTCA-G)(차유진과 이태용, 2008)와 같은 일부 평가도구를 제외하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립되어 있는 평가도구는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체계적인 번역과정을 거친 평가도구는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FIM)(황옥남과 조갑출, 2001), Sensory Profile(임윤정, 박경영과 유은영, 2007), Psychosocial Impact of Assistive Devices Scale(PIADS)(채수영, 조성재, 권혁철, 공진용과 장문영, 2008)에 불과하다.

이 중 Sensory Profile은 감각통합이론을 기반으로 감각처리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Dunn(1999)에 의해 개발된 평가도구로 감각통합이론, 신경과학 이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Sensory Profile은 기존 평가도구들의 복잡하고 엄격한 시행과정 때문에 널리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피하기 위해 부모들을 대상으로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짧은 시간 안에 일상생활에 반영된 감각처리능력을 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평가도구는 작업치료분야의 감각통합영역에서 한국 작업치료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빈도는 14.6%에서 61.2%로 급격히 증가하였다(유은영 등, 2006). 따라서, Sensory Profile에 대한 올바른 한국어 번역이 시급하였으며 이에 임윤정 등(2007)은 체계적인 번역과정을 거쳐 번역하였다. 그러나 다른 문화권의 평가도구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 중 문항이해도와 전문위원회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번역내용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일반 부모들과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문항 이해도를 조사함으로써 번역판 Sensory Profile 평가도구의 내용타당도를 확립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작업치료사 50명과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 95명으로 치료사의 경우 임상경력이 최소 1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별히 소아정신과 혹은 재활의학과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9년 6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이뤄졌으며, 연구 대상자들은 모두

본 연구에 동의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모두 여성(100%)이었으며, 평균연령은 34세 5개월이었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한 경우가 78.8%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부모들의 57.6%가 전업주부였다. 작업치료사의 평균 근무기간은 6년 1개월이고, 학력수준은 대학원 이상인 작업치료사는 50%였으며, 80.7%가 병원 혹은 발달센터에 근무하였다(표 1).

2. 연구 도구

1) Sensory Profile (SP)

1999년 Dunn에 의해 개발된 SP는 일상생활에서 장애 아동의 감각처리능력(sensory processing)을 평가하기 위해 제작된 보호자용 질문지이다. SP는 총 125개 항목이며, 3개 영역, 9개 요소로 구성되어있다. 3개 영역은 감각처리 영역(sensory processing), 조절(modulation)영역, 행동과 감정 반응(behavioral and emotional response)영역으로 나뉘며, 9개 요소는 감각추구(sensory seeking),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정보

(N=75)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부모	남	0
		녀	33
	치료사	남	3
		녀	39
교육정도	부모	고졸	6
		대졸	26
	치료사	대학원 이상	1
		3년제 대졸	11
		4년제 대졸	10
		대학원 이상	21
직업	부모	주부	19
		강사(교사)	8
		회사원	5
		기타	1
근무기관	치료사	병원	19
		발달센터	17
		복지관	5
		기타	1

감정 반응(emotional reactive), 구강감각 민감성(oral sensory sensitivity), 부주의/산만(inattention/distractibility), 낮은감각등록(poor registration), 감각 민감성(sensory sensitivity), 앉아있으려는성향(sedentary), 소근육/인지(fine motor/perceptual)로 이루어져있다. SP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며, 아동의 행동 빈도에 따라 행동이 '항상' 나타날 경우 1점,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경우 5점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평가 결과는 9개 요소별, 3개 영역의 하위항목별 각 총점을 구하여 정상범주(typical performance), 의심범주(probable difference), 문제범주(definite difference)의 세 가지 유형으로 결과를 해석한다. SP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Alpha 계수에서 .47~.91이다. 본 연구에서는 임윤정 등(2007)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된 Sensory Profile을 사용하였다.

3. 연구 과정

1) 전문위원회의 검토

임윤정 등(2007)의 연구에서 역번역 방법을 통해 번역된 Sensory Profile에 대하여 3인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3회에 걸쳐 검토한 후 부적절한 어휘, 문법에 맞지 않는 경우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였다. 전문위원회는 작업치료학과 교수 1인과 Sensory Profile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임상경력 5년 이상의 작업치료사 2인으로 구성하여 Sensory Profile의 원문과 비교·검토하였다.

2) 문항이해도 검증

강원도와 수도권에 살고 있는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95명과 소아정신과 혹은 발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작업치료사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문위원회 검토 이후 수정된 번역판 Sensory Profile을 우편으로 배포하거나 직접 전달하였다. 95명의 부모집단 중 45명의 자료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47.4%이었고, 작업치료사는 50명 중 47명이 응답하여 회수율은 94%였다. 자료 분석에서는 자료누락이 있는 12명 부모의 자료와 임상경력이 1년 미만인 4명 그리고 자료누락이 있는 1명의 작업치료사의 자료는 제외하였다. 문항이해도는 리커트 5점 척도(전혀 이해 안됨, 거의 이해안됨, 보통, 대부분 이해됨, 매우 이해잘됨)를 사용하였으며, 각 항목별 응답자의 80%이상이 '매

우 이해잘됨(5점)', '대부분 이해됨(4점)', '보통(3점)'이라고 표시한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은 수정해야 할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4. 자료분석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보호자와 치료사에 의해 얻은 Sensory Profile의 평가항목에 대한 문항이해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항목별 빈도분석과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6.0 version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전문위원회의 검토

전문위원회의 검토결과 부적절한 어휘 혹은 문법상 오류에 대하여 1차 검토에서는 총 37개 항목, 2차 검토에서는 13개 항목에 대하여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3차 검토를 통하여 3개 항목에 대해 표 2와 같이 수정하였다.

2. 문항이해도

125개 항목에 대한 부모집단의 문항이해도는 응답자의 87.9~100%가 '매우 이해잘됨(5점)', '대부분 이해됨(4점)', '보통(3점)'이라고 표시하여 수정해야 할 항목은 없었다. 치료사집단의 경우 2개 항목(75번, 101번)의 문항이해도에서 응답자의 73.8%만이 '보통(3점)' 이상으로 표시하여 수정항목으로 선정되었다(표 3). 나머지 문항은 응답자의 83.3~100%가 '보통(3점)' 이상으로 표시하여 수정해야 할 항목은 없었다. 그러나 치료사집단의 평균점수가 영역별 또는 요소별 문항이해도에 대한 부모집단의 평균점수보다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역별 문항이해도에서 14개 영역 중 8개 영역에서 치료사집단과 부모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소별 문항이해도에서는 9개 요소 중 6개 요소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표 4)(표 5).

표 2. 3차 전문위원회 검토결과

항목	수정 전	수정 후
59	일상적으로 식료품이 아닌 물건의 냄새를 맡는다.	일상적으로 <u>음식이</u> 아닌 물건의 냄새를 맡는다.
64	식료품이 아닌 물건을 씹거나 씹는다.	<u>음식이</u> 아닌 물건을 씹거나 씹는다.
82	다른 사람을 보기 위해 몸 전체를 돌린다.	다른 사람을 보기 위해 <u>고개(머리)</u> 만 돌리지 않고 몸 전체를 돌린다.

표 3. '보통(3점)' 이상으로 표시한 항목의 개수와 응답률 범위

구분	항목 개수(개)	응답률(%)
부모	125	87.9 ~ 100
치료사	123	83.3 ~ 100
	2	73.8

표 4. 영역별 부모집단과 치료사집단간 문항이해도 평균점수

영역		부모집단 (평균±표준편차)	치료사집단 (평균±표준편차)	p
감각처리	청각	4.40 ± 0.58	4.37 ± 0.57	.821
	시각	4.58 ± 0.47	4.20 ± 0.61	.004*
	전정감각	4.49 ± 0.47	4.25 ± 0.62	.071
	촉각	4.60 ± 0.50	4.29 ± 0.64	.028*
	다감각	4.55 ± 0.48	4.31 ± 0.96	.189
	구강감각	4.52 ± 0.56	4.39 ± 0.59	.304
조절	지구력/근긴장도 조절	4.52 ± 0.53	4.26 ± 0.65	.072
	신체자세/움직임 조절	4.57 ± 0.50	4.16 ± 0.72	.007*
	활동정도 조절	4.64 ± 0.58	4.22 ± 0.68	.006*
	감정 반응에 대한 감각입력 조절	4.53 ± 0.64	4.08 ± 0.77	.007*
	감정 반응과 활동정도에 대한 시각입력 조절	4.67 ± 0.53	4.44 ± 0.59	.086
행동과 감정 반응	감정적/사회적 반응	4.56 ± 0.52	4.05 ± 0.77	.002*
	감각처리행동	4.49 ± 0.58	4.19 ± 0.64	.042*
	반응억치항목	4.46 ± 0.65	4.10 ± 0.78	.041*

*p<.05

표 5. 요소별 부모집단과 치료사집단간 문항이해도 평균점수

영역	부모집단 (평균±표준편차)	치료사집단 (평균±표준편차)	p
감각추구	4.53 ± 0.51	4.20 ± 0.62	.015*
감정 반응	4.51 ± 0.56	4.07 ± 0.74	.006*
낮은 근지구력/근긴장도	4.52 ± 0.53	4.26 ± 0.65	.072
구강감각의 민감성	4.51 ± 0.55	4.36 ± 0.62	.297
부주의/산만	4.48 ± 0.55	4.36 ± 0.59	.377
낮은 감각등록	4.58 ± 0.56	4.24 ± 0.70	.026*
감각 민감성	4.64 ± 0.48	4.32 ± 0.68	.026*
정적 활동	4.62 ± 0.65	4.17 ± 0.74	.007*
소근육/지각	4.66 ± 0.52	4.31 ± 0.69	.021*

* p<.05

표 6. 최종 수정항목

항목	수정 전	수정 후
75	사고를 일으키기 쉬운 것처럼 보인다. [원문: Seems accident-prone]	조심성이 없어 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보인다.
101	성숙하지 못하다(예, 상황에 미숙하게 대처한다). [원문: Has trouble "growing up" (for example, reacts immaturely to situations)]	전반적으로 미숙한 행동 및 정서반응을 보인다 (예, 상황에 미숙하게 대처한다).

3. 최종 수정항목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75번과 101번 문항에 대하여 표 6과 같이 수정하였다.

IV. 고 찰

본 연구는 번역판 Sensory Profile의 내용타당도를 확립하기 위해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통하여 평가목적에 맞도록 평가항목의 표현을 수정하고, 실제로 평가도구를 사용하는 부모집단과 치료사집단을 대상으로 문항의 이해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행동특성을 평가하는 도구들은 행동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내용타당도는 이러한 이론을 기반으로 측정도구에 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이충휘, 2004). 그러나 내용타당도를 평가할 수 있는 통계적 수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타당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에 의뢰하여 검토하거나 질문지를 통해 측정도구의 평가항목 내용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조사해야 한다. 또한, 측정목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은 최소화하여야 한다(Portney & Watkins, 1993).

Sensory Profile과 같이 다른 문화권에서 개발된 평가도구의 사용은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치료나 연구를 할 때 어려움을 갖으며, 또한 번역상의 문제점을 동반한다(Su & Parham, 2002). 또한 Sensory Profile은 기능을 실제 평가하기 보다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질문지 형태의 평가이므로 번역상의 오류나 문화적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번역은 문법과 구문에 관한 차이가 없는 기술적 동등성(technical equivalence), 원문의 내용과 개념적인 차이가

없는 개념적 동등성(conceptual equivalence)과 언어적 타당성을 확립하기 위한 의미적 동등성(semantic equivalence)을 모두 검증해야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원문과 사전적 혹은 문법적으로 일치시키는 것보다 그 의미를 번역하는 것이 중요하다(Sechrest & Fay, 1972). 또한, 번역과정에서 독해수준을 결정하고 평가대상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나 잘못된 응답을 유도하는 오역의 문제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Sensory Profile번역시 임윤정 등(2007)의 연구에서는 독해수준을 결정하지 않았으며, 본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학력수준이 모두 고등학교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학력수준이 낮은 경우 독해력이 현저히 떨어져 평가항목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평가도구의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

번역-역번역 과정과 위원회 검토 이후에 문항이해도 평가는 번역 후 평가항목이 언어적으로 해당 문화권에 적합한 단어로 표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오승준 등(2005)의 연구에서도 평가대상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질문이 쉽고 응답하기 쉬운 번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히브리어 문화권에서 번역된 Sensory Profile에 대한 연구에서는 해당문화권의 언어로 적합하게 번역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역번역 방법이 아닌 2개 국어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개 국어를 사용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원문과 히브리어 번역본을 비교함으로써 원문과의 언어적 차이를 최소화하였다(Neuman, Greenberg, Labovitz, & Suzuki, 2004). 그러나 이 방법은 연구대상자가 사용하는 2개 국어 중 우세한 언어가 있을 때 연구결과는 신중히 해석되어야 한다고 지적된 바 있다(Anderson, 1967). 히브리어 문화권 외에 호주에서 Sensory Profile의 판별타당도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Brown, Leo, & Austin, 2008), 홍콩에서는 Adult Sensory Profile에 대한 구성타당도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 있으나 번역과 관련하여 내용타당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2개 국어를 사용하는 연구대상자 선택과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한 국어를 사용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문항이해도를 조사하였다. 이는 질문항목에 관한 이해정도를 양적 연구로 실시한 것으로 의미가 있겠으나, 앞으로 연구에서는 2개 국어를 사용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로써 인지적 면담

을 실시하여 각 질문문항의 의미에 대한 평가대상자들의 견해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전문위원회는 부적절한 어휘 혹은 문법상 오류에 대하여 1차 검토에서 37개 항목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2차 검토에서는 13개 항목, 3차 검토에서는 3개 항목 수정을 권고하였다. 전문위원회 검토에 의해 영역별로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정서/사회적 반응과 전정감각 처리에 관한 항목이 가장 많이 수정되었으며, 9개 요소별 수정항목은 감각추구(sensory seeking), 감정 반응(emotionally reactive)에 포함된 항목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각 수정항목은 항목에 표현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전문위원회는 감각처리로 인한 문제 상황에 대한 표현을 구체화하거나 문화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정을 권고하였다. 예를 들면, 전정감각처리 항목에서 'Rocks unconsciously'를 번역할 때 '무의식적으로 몸을 흔든다'이지만 원문에 사용된 'rock' 규칙적인 행동패턴을 의미하는 단어이므로 '무의식적으로 몸을 앞뒤(좌우)로 흔든다'라고 수정하였다. 또 다른 예로 'Holds onto walls or banisters(for example, clings)'의 경우 움직임에 대해 낮은 역치수준으로 인해 아동의 행동이 감각 민감성(sensory sensitivity) 또는 감각회피(sensory avoiding)로 해석되는 항목이므로 '벽이나 계단 난간에 매달린다'라는 능동적 표현보다 '벽이나 계단 난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한다'는 부정적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이렇게 언어적, 문화적 차이가 있는 다른 나라의 질문지 형식의 평가도구를 번역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론적 개념과 그 의미를 유지하는 것이고 이것은 번역문장을 사전적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중요하다(Kristjansson et al., 2003). 또한, 역번역 방법을 통한 번역은 번역과정에서 원문의 목적과 내용이 변할 수도 있어, 번역(translation)자체 보다는 변안(adaptation)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Geisinger, 1994).

전문위원회에 의해 수정된 Sensory Profile에 대하여 부모와 치료사간의 문항이해도를 비교한 결과 부모집단은 응답자의 87.9~100%가 '보통(3점)' 이상으로 응답하여 수정해야 할 항목이 없는 반면, 작업치료사의 문항이해도의 경우 2개 항목(75번, 101번)에서 응답자의 73.8%만이 '보통(3점)' 이상으로 표시하여 수정항목으로 선정되었다. 최종적으로 전문위원회 검토를 통하여 2개 항목을 수정하여 완성하였다. 또한, 치료사집단과 부모집단의 문

항이해도를 비교한 결과 부모집단에 비해 치료사집단의 문항이해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영역별 문항이해도에서 14개 영역 중 8개 영역에서 치료사집단과 부모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소별 문항이해도에서는 9개 요소 중 6개 요소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부모집단이 문장을 있는 그대로 읽는 반면 작업치료사는 감각통합이론을 근거로 문장을 재해석하여 엄격히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2개 항목을 제외한 123개 항목에 대해 두 집단에서 모두 80% 이상 '매우 이해됨(5점)', '대부분 이해됨(4점)', '보통(3점)'이라고 표시하여 수정해야 할 항목은 없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 대상자들과의 인지적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 대상자들이 번역내용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질적 측면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내용타당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모, 치료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대상자수가 적다. 그러나 Sensory Profile의 문항이해도 조사와 전문위원회 검토를 통하여 내용타당도를 확립한 것은 국내에서 Sensory Profile을 사용하는데 임상적 유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번역판 Sensory Profile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Sensory Profile의 점수척도의 적합성 여부, 감각처리능력의 문제가 있는 아동에 대한 진단도구로서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번역판 Sensory Profile 평가도구의 번역내용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문항이해도 조사를 통하여 내용타당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전문위원회는 부적절한 어휘 혹은 문법상 오류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수정된 Sensory Profile에 대하여 부모집단과 치료사집단의 경우 문항이해도가 모두 높게 나타나 문항이해도 측면에서 읽기 쉽게 표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전문위원회 검토를 통하여 일부 항목을 수정함으로써 내용 타당도를 높였다.

참 고 문 헌

- 박소연, 유은영. (2002). 한국 작업치료사의 평가도구 사용에 관한 연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0(2), 99-108.
- 양경희, 안승현, 박창식, 장용수, 조병모, 신영일. (2007). Hemiplegic motor behavior tests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연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5(2), 55-65.
- 오승준, 박형근, 백성현, 박원희, 주명수. (2005). King's Health Questionnaire의 한국어 번역 및 번역본의 언어타당도. *대한비뇨기과학회지*, 46(5), 438-450.
- 유생열. (2003). Translating and validating questionnaires for physical education research. *교육논총*, 22, 203-217.
- 유은영, 정민예, 박소연, 최은희. (2006). 한국 작업치료사의 영역별 평가도구 사용 동향.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4(3), 27-37.
- 이충휘. (2004).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위한 연구방법론. 서울: 계축문화사.
- 임은영. (1998). 타문화권 태도척도 번안에서 역번역절차의 중요성.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임윤정, 박경영, 유은영. (2007). Sensory Profile 평가도구의 국내적용을 위한 번역연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5(2), 25-42.
- 정한영, 김명옥, 백경우, 김태현. (1999). FIM에 의한 일상 생활 동작 평가의 검사자 신뢰도 분석. *대한재활의학회지*, 23(3), 492-496.
- 차유진, 이태용. (2008). 한국문화를 고려하여 수정한 LOTCA-G의 타당도 및 신뢰도.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6(2), 35-45.
- 채수영, 조성재, 권혁철, 공진용, 장문영. (2008). Psychosocial Impact of Assistive Devices Scale(PIADS)의 국내적용을 위한 번안연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6(3), 71-85.
- 황옥남, 조갑출. (2001) Translation and validity test of the FIM instrument and guide. *대한재활간호학회지*, 4(2), 232-239.
- Bullinger, M., Alonso, J., Apalone, G., Lepege, A., Sullivan, M., Wood-Dauphinee, S., et al. (1998).

- Translating health status questionnaires and evaluating their quality: The IQOLA project approach. *Journal of Clinical Epidemiology*, 51(11), 913–923.
- Case-Smith, J. (2005). *Occupational therapy for children* (5th ed.). St. Louis: Mosby.
- Dunn, W. (1999). *Sensory Profile: User's manual*. San Antonio, TX: Psychological Corporation.
- Ercikan, K. (1998). Translation effects in international assessm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9, 543–553.
- Geisinger, K. F. (1994). Cross-cultural normative assessment: Translation and adaptation issues influencing the normative interpretation of assessment instruments. *Psychological Assessment*, 6, 304–312.
- Kristjansson, E. A., Desrochers, A., & Zumbo, B. (2003). Translating and adapting measurement instruments for cross-linguistic and cross-cultural research: A guide for practitioners. *Canadia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35(2), 127–142.
- Law, M., Baum, C., & Dunn, W. (2005). *Measuring occupational performance: Supporting best practice in occupational therapy*. Thorofare, NJ: Slack.
- Mulligan, S. E. (2003). *Occupational therapy evaluation for children: A pocket guide*. Philadelphi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Neuman, A., Greener, D. F., Labovitz, D. R., & Suzuki, L. A. (2004). Cross-cultural adaptation of the sensory profile: Establishing linguistic equivalency of the hebrew version. *Occupational Therapy International*, 11(2), 112–130.
- Pedretti, L. W., & Early, M. B. (2001).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skill for physical dysfunction*. St. Louis: Mosby.
- Portney, L. G., Watkins, M. P. (1993). *Foundations of clinical research: Applications to practice*. Norwalk: Appleton & Lange.
- Radomski, M. V., & Trombly, C. A. (2008). *Occupational therapy for physical dysfunction* (6th ed.). Philadelphi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Sechrest, L., & Fay, T. L. (1972). Problems of translation in cross-cultural research.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 41–56.
- Su, C. T., & Parham, L. D. (2002). Generating a valid questionnaire translation for cross-cultural us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56(5), 581–585.

Abstract

A Study on the Readability and Content Validity of Korean translated Version of the Sensory Profile

Park, Kyoung-Young^{*}, M.Sc., O.T., Yoo, Eun-Young^{**}, Ph.D.,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yungdong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Health Science, Yonsei University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readability and to establish the content validity of the Sensory Profile (Korean version).

Methods : For review of a Sensory Profile, the committee was comprised of one professor of Dept. occupational therapy and two occupational therapist with over 5 years' clinical experience in using the Sensory Profile. The committee compared Korean version of the Sensory Profile with original version and reviewed grammar, sentence structure and meaning of items. For readability, 33 parents with children and 42 occupational therapists with over 1 years clinical experience rated their degree of understanding of the Korean-translated items using 5 point Likert scale. We selected and corrected the others except for items attained at least 3-points above 80% of the respondents for readability.

Results : The committee selected 37 items with inappropriate word or poor grammar, and the selected items were corrected. Then, in the second review the committee recommended correcting 13 items and in the last review 3 items. 87.9~100% of the parents responded with 3 point or above for readability of the final version of Sensory Profile so any items weren't corrected. And above 83.3% of 42 occupational therapists responded with 3 point or above for readability of all items except for 75 item and 101 item. Finally, two items were corrected by review of the committee.

Conclusion : We concluded that the Sensory Profile was translated into Korean to be easily read and the content validity of the instrument was established through a review by the committee.

Key words : Committee review, Content validity, Readability, Sensory profile